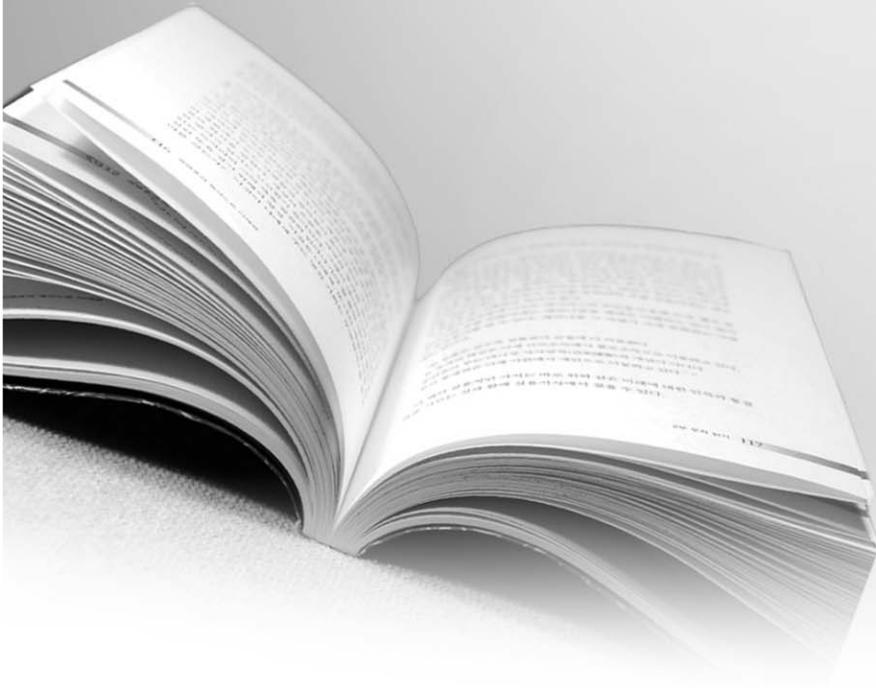


# 기 조 논 문

■ 오윤선(Ph.D., 한국성서대학교)  
• 기독교상담윤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к с і

# 기독교상담 윤리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오 윤 선 교수  
(Ph.D., 한국성서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과 상담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하는 기독교상담 윤리교육에 대해서 학문적 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기독교상담 윤리 문제는 첫째, 무분별하게 일반심리학을 받아들임으로 잘못 된 윤리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상담자 자신에 대한 윤리와 전문적 자질문제와 내담자 관계에서의 윤리문제가 있다. 셋째, 내담자 관계에서 주어진 윤리문제로는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내담자 이중관계, 성적 친밀도 등 이다.

본 연구에서 미국과 한국에서 초창기부터 일반 상담기관으로 활동해 온 APA, KCPA, 기독교상담기관으로 미국의 대표적 기관인 CAPS, 기독교상담기관으로 최근에 윤리 강령을 시행한 KAPC를 중심으로 상담윤리 요강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한국은 윤리요강에 대한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독교상담 윤리교육에 대한 교과과정이나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하였고 체계적인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을 볼 수 있다.

기독교상담 윤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 지식과 상담기술 습득을 위한 노력, 아울러 윤리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현장에서 기독교상담 윤리 조항이 잘 적용 될 수 있게 상담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상담윤리교육을 위해서 상담윤리 통합 교육과정과 이론 및 실제의 바른 상호관계설정에서 비롯된 상담교육 방법이 실시되어야 한다.

기독교상담 윤리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담윤리에 관한 전문 연구를 위한 조직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윤리교육 교과과정 편성과 공통 교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담윤리교육을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하며, 상담자 자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중심단어** : 윤리교육, 비밀보장, 내담자 이중관계, 성적 친밀도, 윤리요강

## I. 여는 글

한국에서 상담심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해방과 더불어 구미의 교육사상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상담교육이 실시 된 것은 1957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카운슬러 강습회를 개최하여 40여 명의 전문적 상담교사를 교육시킨 것이 그 시초이다. 그리고 1970년에 이르러서는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담전공의 대학원이 개설되었고 한국심리학회 안에 임상심리분과회가 창립되어 전문가 자격증 제도가 실시되었고, 1987년에 임상심리분과회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가 독립되면서 상담전공자와 상담활동에 종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게 되었다.<sup>1)</sup>

한국에서의 일반 상담심리학의 발전과정과 더불어 목회상담 영역도 미국 교육의 영향으로 비슷한 출발시점을 가지고 있다. 1960년 연세대에서 목회상담학을 강의한 선교사 Van Lierop박사와 1963년 Rogers의 '카운셀링의 이론과 실제'의 책을 번역한 한승호목사 등의 강의,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심리치료라는 영역에 강조점을 두고 있었던 Carroll Wise의 책이 1965년 김태묵에 의해서 '목회상담'이란 제목으로 번역 소개되었다. 현대 목회 상담학의 시도적 첫발을 내디딘 Hiltner의 책을 1976년에 마경일이 '목회 카운슬링'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을 학과목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기독교(목회) 상담학회 활동은 1990- 2000년대에 시작되었기에 한국에서 기독교상담학으로서의 학문적 역사는 짧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이에 반하여 교육현장과 목회현장에 상담에 대한 요구는 급증하고 관심 또한 지대함을 볼 수 있다. 목회현장에서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제대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장에서 상담자들이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때, 상담은 전문적으로 존중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 기독교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련

된 많은 글과 책이 나오고 있으나, 상담 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윤리적 결핍에 따르는 문제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윤리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볼 수 있다.

기독교 윤리교육 및 상담윤리교육이 기독교윤리학에서 그 위치를 자리 매김하지 못한 이유는 윤리교육에 대한 관심의 부재에 기인한다. 특히 개신교 기독교 윤리학자와 상담학자들 가운데 기독교 윤리교육에 관심을 두지 못한 이유 가운데는 윤리교육을 향한 초점에 거부 반응을 가졌기 때문이다. 도덕적 자아의 형성과 발달<sup>3)</sup>과 같은 윤리교육의 주된 내용에 대한 집중이 개인의 자아 완성과 성취에 대한 근거 없는 관심을 초래하며 인간을 선의 척도로 만들 것이고 윤리교육에 의한 자아 형성이나 도덕발달이 가치 그 자체인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은 실존주의자들과 신정통주의 신학자<sup>4)</sup> 그리고 상황주의 윤리학자들에 의해서 나왔다.<sup>5)</sup> 기독교상담 과 교육에 자아의 개념은 통합되고 연속적인 것으로서 변화 속에 지속적인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의미의 자아는 개신교 신학의 논리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와 그 형성 체계는 오히려 개신교 신학과 같은 길을 걷는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교육에 의한 성화 작업에 의해 은혜 속에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형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 자아가 형성되고 발달해 간다. 이외에도 기독교 윤리학자들에게 윤리교육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인 것 중 하나가 윤리교육에 의해 구축되는 도덕적 자아와 도덕성 형성은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윤리교육에 의해 구축된 도덕적 자아는 이웃 사랑을 위한 하나의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지침을 마련하거나 원리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시점에 본 연구자는 한국기독교상담 윤리에 대한 학문적 정체성 확립과 체계적인 상담윤리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II. 펴는 글

### 1. 상담윤리 이해

#### 1) 상담의 윤리적 의의

상담윤리란 상담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규범으로 상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담 과정이나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담윤리는 서로 친분관계가 없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것이며, 그 목적은 상담자로 하여금 책임성을 확보하여 내담자에게 보다 전문가다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6)</sup>

일반적인 입장에서 상담윤리의 현실적 개념을 정리하면 첫째, 상담윤리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탐구하는 활동지침이다. 둘째, 상담윤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가 대립된 상황에서 서로 다른 가치에 질서를 부여하고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구별해주는 것이다. 셋째, 상담윤리는 상담자에게 정직성과 책임성을 가지게 한다. 정직성은 상담과정에서 상담자의 이익을 위해 내담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상담자로서의 지녀야 할 윤리적 덕목을 말하며, 책임성은 상담자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재량권을 행사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도덕적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핵심사항이다. 넷째, 상담윤리는 행위규범의 기준과 사고의 성찰을 통한 판단능력을 향상케 한다. 이것은 상담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도록 하는 자체 통제장치로, 도덕과 행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상담윤리의 행위주체는 상담자이고, 상담자가 행동하는 환경은 내담자 중심이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윤리적 핵심내용은 상담자 개인의 바람직한 덕목과 의사결정의 지침이 되는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sup>7)</sup>

이상에서 제시된 일반 상담윤리의 현실적 개념에 대해서 미국의 경우 상담수의 기독교상담자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그 이유는 여러 기독교

기관에서 제정한 상담윤리 강령 가운데 미국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윤리 원칙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점을 이루기 때문이다.<sup>8)</sup>

하지만 기독교상담자는 어떤 직업윤리 보다 더 엄격하고 확실한 윤리기준이 요구 된다. 비기독교인은 다원론적 사회에서 유래된 세계관에 따라 윤리를 세우지만 기독교상담자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또 사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일한다는 사실이 윤리기준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복음주의 상담학자 Gary R. Collins는 기독교상담자의 상담윤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교회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sup>9)</sup> 그리고 기독교상담자가 추구해야 할 상담윤리는 성경적 진리로 일관된 세계관 위에 세워지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서 복음주의 상담학자들이 추구해야 할 윤리규정은 CAPS(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라고 하였다. CAPS의 윤리규정은 성경에 관한 진술로 시작되었고,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상담자들이 믿음의 지체들과 연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CAPS 규정은 봉사를 위한 소명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경건생활에 대한 헌신을 내포하고 있고, 직업을 위한 기초로서 사랑을 강조하고, 가족화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2) 상담윤리의 역사적 발달과 연구동향

상담윤리에 대한 시작은 1952년 미국AACD(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가 설립되면서 상담분야에 윤리 요강(Ethical Standards)이 만들어지고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를 통해서 윤리원칙(Ethical Principles of Psychoiologists)이 세워지면서 부터이다. 1953년 Donald Super에 의해서 윤리위원회(Ethical Practice Committee)가 창설되고,<sup>10)</sup> 이 윤리 위원회의 일환으로 1959년 “APGA의 윤리시안”(The Proposed Code of Ethics of APGA)이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에 실렸고, 1961년 승인을 받아 1974년, 1981년, 1988년 등 세 번에 걸쳐서 개정되었다. AACD의 위원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6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

는데, 1964년 첫 사례집을 발간하고 1982년 제 3집을 발간하여 윤리문제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해 왔다.<sup>11)</sup> 이 당시에 윤리위원회가 관여한 문제는 대개 상담실습에 대한 광고(홍보)문제, 비밀보장에 관한 문제, 전문적 기관과의 관계, 상담과 훈련에 관한 문제, 표절에 관한문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친밀도에 관한 문제, 성적으로 괴롭히는 문제, 성문란 관계, 그리고 윤리요강의 일반적인 해석문제 등을 주로 다루었다. AACD 외에 1992년도에는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심리학자 윤리강령<sup>12)</sup>을 발표 하였는데, 전문능력, 진실성, 전문적 및 과학적 책임, 개인의 권리와 품위의 존중, 타인복지에 대한 관심, 사회적 책임을 들고 있다. 그리고 윤리기준으로는 ① 일반적 기준 ② 평가, 사정, 개입 ③ 광고 및 기타 공적 진술 ④ 치료 ⑤ 사생활 및 비밀보호 ⑥ 교수, 수련 감독, 연구, 출판 ⑦ 법정 관련 행위 ⑧ 윤리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지침이다. 그리고 ACA(American Counselor Association)에서도 1996년도에 윤리강령 및 상담규준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상담관계 ② 비밀보장 ③ 전문적 책임 ④ 타 전문인과의 관계 ⑤ 평가, 진단과 해석 ⑥ 교수, 훈련과 수퍼비전 ⑦ 연구와 출판 ⑧ 윤리적 문제의 해결이다. 한걸음 더 나가 ACA에서는 1999년도에 On-line Counseling에 대한 윤리적 기준도 제시하였다.<sup>13)</sup>

기독교상담분야의 윤리요강은 1956년에 설립 된 CAPS(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에서 성경적 원리를 중심으로 상담윤리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 오다가 1980년대 초에 윤리요강을 확립 시켰고, 2000년 4월7일에 다시 내용이 보완 첨부되어 현재 미국과 캐나다 외 25개국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CAPS 보다 늦게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지만 현재 5만 회원을 확보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AACCC(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는 1988년에 윤리요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0년과 2003년에 재개정을 실시하여 2004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는데, 40페이지 정도의 방대한 내용의 기독교상담 윤리 강령과 세부 세칙들이 완성된 것이다. 그러나 CASP와는 노선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GCCA(Georgia Christian Counselors Association), ACC(The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lors) 등 많은 기독교상담전문 기관에서 윤리 요강을 계속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본다.

미국사회는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케이스가 많은 나라인 만큼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상담윤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상담 윤리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상담 윤리 서적 가운데는 “Excellence and Ethics in Counseling”,<sup>14)</sup> “Christian Counseling Ethics”<sup>15)</sup> 외에도 많은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으며, 연구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상담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은 1963년 한국 카운슬러 협회가 창립된 이후 14년이 지나서 시작되었다. 1977년 이장호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담당 소위원회에서 윤리 요강이 작성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 제정되었고, 1980년 8월18일 제 15차 연차 대회 총회에서 “한국 카운슬러 윤리강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심리학회의 이러한 윤리강령은 미국심리학회(APA)의 윤리강령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며 급성장하는 전문 상담자들을 위한 지침이 되기에는 너무 미약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상담 윤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한국심리학회 산하 한국 상담학회에서 2003년 5월17일 윤리강령 시행령을 만들었고 2004년 4월17에 용어 수정을 하였다. 그리고 윤리강령에 관한 시행 세칙 안을 2004년 9월1일에 만들었고 2005년 10월1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 기독교 관련 상담학회에서도 상담윤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목회상담학회(The Korean Association Pastoral Counselors)에서 윤리강령을 제정한바 있다. 한국 목회상담학회의 윤리강령에 관한 내용은 ① 전문적인 업무들 ② 내담자와의 관계 ③ 비밀보장 ④ 타전문가들과의 관계 ⑤ 홍보 ⑥ 윤리 강령 실시절차 등이다.

현재 일반 상담분야와 기독교상담분야에 많은 저서와 번역서가 소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윤리에 대한 저술이나 번역 그리고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상담윤리를 주제로 다룬 연구들을 살펴 보면, 1991년에 김은희<sup>16)</sup>가 상담윤리결정을 위한 연구를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상담윤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1999<sup>17)</sup>년과 2000<sup>18)</sup>년에 비로소 최원호에 의해서 직업과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각각 상담윤리에 관한 논문이 나오고, 조사 연구로는 2002년에 최해림<sup>19)</sup>에 의해서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2004년에 방기연<sup>20)</sup>에 의해서 집단상담에서의 윤리강령이 연구 되었다. 상담윤리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없는 가운데 최원호는 이전 두 편의 논문을 발전시켜 2004년 상담윤리의 개념정립이라는 이론적 연구로 국내 최초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다.<sup>21)</sup>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상담분야에서는 1994년 정정숙의 ‘기독교상담학’<sup>22)</sup> 가운데 기독교상담과 윤리라는 주제로 일부분 소개되었고, 1996년에 오윤선<sup>23)</sup>이 “기독교와 상담 윤리”를 번역 소개 한 이후 박노권<sup>24)</sup>에 의해서 “목회상담에 있어서 윤리의 중요성”이 연구 되었으나 기독교상담 윤리에 관한 적용 연구는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 3) 상담의 윤리적 문제

#### (1) 심리학적인 문제

1879년 Wilhelm Wundt(1830-1920)가 라이프찌히(Leipzig)대학에서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을 세우면서 기존의 철학적 심리학에서 과학적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장이 열리게 되고 뒤이어 심리학 학파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심리학과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 유럽중심의 구성주의, 형태주의, 정신분석과 미국중심의 기능주의, 행동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모든 학파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통합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sup>25)</sup>

기독교상담 심리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현대 상담심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과학적 심리학과 같은 시대적 맥락 속에서 발전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적 이유 때문에 기독교상담 윤리에 일반심리학이 적

지 않게 영향을 미쳤음을 본다.

Sigmund Freud를 비롯한 심층심리학자들의 학문적 성향을 보면 도덕 철학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려고 노력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프로이드는 초자아(super ego)가 원자아(Id)를 너무 억압하면 신경증적 히스테리를 갖게 된다고<sup>26)</sup> 생각했기에 어떠한 가치관이나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기를 회피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자 Carl Rogers도 상담자는 내담자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선택되더라도 완전히 허락해야 하며, 그것이 내담자의 온전한 성장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sup>27)</sup>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윤리 규범을 부정적으로 보는 심리학자들의 영향이 목회 상담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Seward Hiltner는 그의 저서 'Pastoral Counseling'에서 도덕주의는 목회적 돌봄과 상담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의 하나라고 말하며, 돌봄과 상담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도덕적 확신은 접어들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즉, 내담자들이 그들의 윤리에서 좀 더 자율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적절한 목표라고 믿으며, 상담자는 추론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8)</sup> 이는 목회심리학 운동의 초기 지도자들과 많은 목사들이 Hiltner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또한 당시 폭넓게 읽혀지던 로저스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다.<sup>29)</sup> 그리고 1950년대에 미국의 거의 모든 신학교 주요 교과과정에 등장한 CPE(임상목회교육)은 심리학적 수용과 내담자 자신의 가치관을 주요 관심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신학적인 윤리가 설자리를 잃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목회적 돌봄의 역사를 고찰해 보면, 일반심리학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기독교상담학파나 학자들 가운데는 윤리와 치료적 기능에 있어서 아무런 구분을 두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기독교 상담이 다양한 상담학파의 성향으로 나누어진 시점에서 상담 윤리를 강조하는 신학적 전통 위에서 상담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볼 수 있다.<sup>30)</sup>

## (2) 상담자 자신에 대한 윤리와 전문적 자질문제

상담자의 자아형상은 내담자에게 그대로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기에 상담

자 자신에 대한 윤리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 윤리에 있어서 상담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자아형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up>31)</sup> 기독교상담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자아의식을 소유하며, 자신에 대한 윤리적 입장을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상담자에게 자아형성(Self-image)은 하나님 사랑과 자신의 존재 의미를 바로 확립하는 기회이다.

상담자가 성경적 자아형성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봉사의 소명 아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되며, 자신을 개발하고 또 자신을 주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담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인격의 성숙을 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엡 4:13). 성경적 자아형성 소유와 함께 상담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상담에 관한 전문성이다. 상담자의 전문성은 그 상담자가 제공하는 상담의 질과 수행하는 상담 영역에 관련된다. 상담자는 최소한의 질적인 상담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자가 수행하는 상담은 전문가들이 정한 규정과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교육, 실습, 각종 훈련을 받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up>32)</sup>

상담자가 전문가로서의 상담전반에 걸친 이론과 실제에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상담을 함으로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상담자가 전문가로서의 책임(professional responsibility)을 가져야 하는 것은 상담이라는 전문직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상담자의 전문가적인 행동의 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고 상담자가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고 탁월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서슴없이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전문가에게 위탁해야 할 일은 위탁하면서 상담 사역을 다른 전문가와 함께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세는 상담자의 성숙한 인격과 직결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로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어야 한다.<sup>33)</sup>

### (3) 내담자 관계에서의 윤리 문제

#### ①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은 상담윤리강령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privacy)는 상담 관계를 비밀로 할 수 있는 내담자의 권리를 말하며,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은 상담에서 밝혀지는 내담자의 정보에 대해 상담자가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sup>34)</sup> 비밀보장의 윤리가 정립되지 못하면 아무리 귀한 성경의 원리를 제시할지라도 내담자의 신뢰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내담자는 상담을 중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담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상담에서 비밀보장의 문제는 개인의 사적인 비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불특정 다수의 정보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 노출시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컴퓨터를 이용, 내담자의 개인 상담 기록까지 DB로 구축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유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까지 한다.

#### ② 내담자 이중관계

상담자가 상담 관계나 수퍼비전 관계에 개인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것을 이중관계(dual relationships)라 한다. 상담자가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내담자에 따라 기대하는 상담자의 의무와 책임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간혹 내담자와의 상담관계를 넘어 이중적 관계에 빠질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놓여있는 직업적 경계를 파괴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중적인 관계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요인에는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한 감정이 동요 될 때이다. 상담기간을 통해 내담자가 얻는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생활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상담자와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는 내담자와는 상담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신임은 실추되고 상호에 대한 규범은 더욱 모호해지며 상담에 대한 기대도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역할과 내담자와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전문성과 의무에 대한 중립성, 그리고

이러한 상담자를 신임하는 내담자 모두가 성공적인 상담을 이루는데 중요한 사항이다.<sup>35)</sup>

### ③ 성적 친밀도

상담자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담자의 감정을 최대한 공감하며 수용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내담자는 자신의 고민이나 감정을 상담자에게 스스로 부담 없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sup>36)</sup>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 가운데는 자존감이 낮거나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인관계에서 소외받고 상처가 많은 내담자는 상담자의 따뜻한 온정과 이해, 자신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존재의식을 새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때 내담자는 상담자의 관심표현에 경계심리가 무너지고 상담자에게 기꺼이 반응하며, 특별히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성일 경우 문제해결에 앞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는 갈등에서 성적 친밀감으로 이동하거나 성적 관계에 빠질 우려가 있다.<sup>37)</sup>

미국의 경우 일반 상담자들의 5~7% 정도가 내담자와 성적으로 연관(Sexual relation)되어 있다고 보고가 있으며<sup>38)</sup>, 또 다른 통계에서는 심리치료사의 6~10%는 내담자와 성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한다.<sup>39)</sup> 그리고 미국 목회 상담자와 교인인 내담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 관련은 10~15% 정도라고 분석되어 다른 상담 관계에서 보다 높은 비윤리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up>40)</sup>

그러므로 상담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제한된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 할 때 많은 문제에 놓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 또는 심각함을 기억해야 한다. 성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성적 취약성이 있으며 유혹에 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상담자의 역할과 개인적 역할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자신의 성적 윤리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할 때 상담자는 성적범죄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윤리적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야 하며, 특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준행해야 한다.

상담자가 내담자와 신뢰관계를 신앙을 토대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원활한 상담을 위한 길이요, 서로의 가능성을 개발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재 파송의 자리에 이르게 한다. 상담자와 내담자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서 상담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윤리 또한 정립되어야 한다.

기독교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성적 비행과 관련 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건강하고 윤리적 경계에 예의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결정하기 곤란한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에는 신앙과 전문성을 가진 동료상담자와 감독상담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다.<sup>41)</sup>

#### 4) 상담전문기관의 윤리요강 분석

미국과 한국에서 초창기부터 일반 상담기관으로 활동해 온 APA, KCPA, 그리고 기독교상담기관으로 미국의 대표적 기관인 CAPS, 기독교상담기관으로 최근에 윤리 강령은 시행한 KAPC를 중심으로 상담윤리 요강을 분석하면 표-1과 같다.

〈표-1〉 기관별 상담윤리 요강

APA	KCPA	CAPS	KAPC
1. 상담관계	1. 전문가의 태도	1. 기독교인으로서 개인적인 헌신	1. 전문적인 업무들
2. 비밀노트	2. 사회적 책임	2. 내담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	2. 내담자와의 관계
3. 전문적 책임	3. 인간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3. 신뢰성	3. 비밀보장
4. 다른 전문가들과의 관계	4. 상담관계	4. 유능한 사역자	4. 피감독자, 학생 및 피고양자와의 관계
5. 평가·요구조사·해석	5. 정보의 비밀	5. 인간적 제한성	5. 타전문가들과의 관계
6. 교수·훈련 그리고 감독	6. 상담연구	6. 광고와 촉진 행위	6. 홍보
7. 연구와 출판	7. 심리검사	7. 조사	7. 윤리 강령 실시 절차
8. 윤리적 논제 결정	8. 윤리문제 해결	8. 비윤리적 행위, 대면, 직무상 과오	
		9. 일반적이고 세심한 규칙	

①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와 KCPA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비교 분석

1996 윤리강령이 시행된 APA와 2003년 5.17에 시행된 KCPA의 상담관계에 대한 내용을 성적친밀도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미국의 APA는 상담관계에서 실천원칙이 매우 세부적인 것에 비하면 KCPA는 조금 덜 세밀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KCPA의 윤리강령은 APA를 모델로 했기에 두 기관 모두 상담전문가는 이중적 관계를 피해야 하고 현 내담자 및 이전 내담자와 성적관계를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보호에 대한 내용을 비교분석하면 APA에서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의사소통된 것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타당한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노출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KCPA에서도 사생활과 내담자의 내담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담과 관련된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해야 할 때에는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경우 내담자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비밀 보호의 한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상담시작 전에 알려줘야 한다. 특히 전자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CAPS(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와 KAPC(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 비교 분석

기독교상담기관인 CAPS와 KAPC를 내용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CAPS와 KCPA를 상담윤리 시행실시 기간으로 단순 비교하면 CAPS는 1980년대에 윤리 강령이 실시되었고 KAPC는 최근에 시행되었다.

먼저 CAPS 규정을 살펴보면 넓은 범위의 도덕성을 포괄하지만 또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윤리적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이다. CAPS 규정은 평범하지 않으면서 보편화하는 것을 지향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행동에 대해 명백한 기독교적인 규정에 헌신하기를 요구한다. CAPS 규정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

적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개인적으로 대처하도록 격려한다. CAPS의 규정이 다른 기관의 윤리규정과 다른 점은 상담자는 섬기는 사역이요 특별한 하나님의 소명자로 기독교적인 가치, 원리, 기준에 따른 개인적 헌신을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sup>42)</sup> 그리고 CAPS에서는 내담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강조하지만 어떠한 내담자와도 성적으로 친밀한 행동은 신중하게 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CAPS는 상담의 신뢰성으로 비밀보장, 상담자의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KCPA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윤리적 행위나, 대면, 직무상 과오를 다룸에 있어서는 KCPA와 달리 성경의 원리와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CAPS에 비해서 한국의 KAPC는 신앙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몇 가지만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2. 기독교상담 윤리교육

### 1) 기독교상담 윤리의 교육적 의미와 목표

현대와 같은 지식 정보화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전문 지식과 상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요하기에 상담자는 평생학습자로서의 자세가 요구 된다.<sup>43)</sup> 상담자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윤리적인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윤리조항을 익히고 실제로 상담의 상황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상담윤리교육이 필요하다.

상담자의 윤리교육은 스스로의 행동 변화를 전제로 하는 가치덕목을 내면화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며 상담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기본적 과제이다. 상담윤리교육은 상담자들에게 상담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필수적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독교상담학회를 포함해서 일반 상담학회와 상담교육기관에서도 상담윤리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상담자가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내담자는 상담

자에게 특별한 심리적 경계의식 없이 편안한 상태로 쉽게 마음을 열어 놓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윤리의식이 부족한 상담자가 내담자의 약점 악용, 비윤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을 본다.<sup>44)</sup> 그러므로 상담자는 전공지식과 상담기술에 더하여 윤리적으로 건강한 인격을 지니도록 상담윤리교육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훌륭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상담윤리교육의 목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공동생활에 필요한 윤리관을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

상담자로서 윤리관을 확립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 능력과 인격을 계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적 판단 능력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문제 해결에 보다 원론적인 원칙에 입각한 접근을 시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독교상담 윤리 목표는 기독교 교육목표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있으며,<sup>45)</sup> 내담자를 '변화' 시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다.<sup>46)</sup>

## 2) 상담윤리 통합적 교육 과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와 단계의 종합이기에 일련의 교육활동 중에서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상담이 단순히 지식이나 상담기교를 주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상담자로서의 사명감과 책무성을 일깨워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윤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특별히 상담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 교육과정 모형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상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윤리교육은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문상담자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부터 정규교육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상담관련 유사학과에서 상담윤리 혹은 윤리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별도의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보니 상담자 윤리의식 자체가 경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윤리의 교육과정 자체를 비의도적이고, 비형식적, 비계획적, 비조직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상담윤리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교육적 의도를 지니고 뚜렷한 교육목적과 가치 있는

내용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상담 현장에서 많이 야기되는 윤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한 신학적인 바탕위에서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조직, 그리고 교수 학습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윤리 교과과정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이론과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상담 윤리의 교과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초이론, 응용분야, 사례분야로 나누어야 한다. 여기서 기초이론은 윤리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본개념 및 윤리적 방법론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응용분야는 상담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기초이론을 활용하는 방법과 윤리적 기준을 다루게 된다. 사례연구는 학생들이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도록 실제의 사례를 제시한다. 사례연구의 예로는 상담윤리 강령, 상담자의 능력, 심리검사, 이중관계, 성적친밀감, 직업윤리 등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상담 윤리의 영역별 교육내용으로는 인지영역, 정의영역, 행동영역, 신앙영역으로 구분지어 각각 생각 할 수 있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통합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통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윤리 교육을 각 단계별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별 통합이 이루어질 때 인지를 통하여 실천적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가 신전의식(신앙영역)을 가지고 상담관계에서 관련 된 문제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인지영역)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의지와 신념을 내면화하고(정의영역),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영역을 중심으로 통합 상담윤리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상담윤리 교육 방법

기독교상담 윤리의 교육방법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우선적으로 이론과 실제의 바른 상호관계설정에서 비롯되어야 하겠다. 이는 실천에 우위를 두

는 변증법적 관계보다는 둘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윤리학이 이론과 실천적 학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삶을 영위하는 관습적 및 합리적 제도에 관한 규범과 가치판단, 그리고 그 근거들에 대한 탐구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윤리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고려 할 사항은, 바른 신학에 근거한 기독교상담 윤리 이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자가 상담윤리학에 관한 기초이론과 개론적 내용을 통하여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기란 쉽지 않기에 기독교상담 윤리학의 이론적 기초로 신학과 성경적 조망, 그리고 윤리 규범과 교육적 접근 등을 통하여 실제적 상담윤리에 대한 강의를 통한 이론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담윤리 강령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상담윤리 강령에는 상담자의 윤리적 책임사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되어 있기에 세부적 지침을 잘 습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신생 상담기관이나 기독교 관련기관 가운데 상담윤리 강령이 아직 제정되지 못할 경우 잘 정비된 국내외 기관의 윤리강령을 비교분석하면서 학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상담과정에서 주어진 사례연구를 통한 방법이다.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교육은 실제적인 윤리교육 방법이 된다. 만약 사례연구가 상담자의 실제적인 상담과정에서 주어진 문제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사례연구 방법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담 관계에서 현실적이고 윤리적 결정과 관계된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이해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윤리교육을 하게 되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윤리개념을 극복 할 수 있게 되고, 상담과정의 현실적 복잡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반영시켜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윤리전반에 대한 상담자의 포괄적 이해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확장시켜 주며, 문제해결 과정의 고려사항에 대해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이해를 넓혀 줌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가져다준다. 더 나아가 사례 연구방법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피드백 효과를 향상시켜 윤리교육의 실제적인 현장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sup>47)</sup>

### 3. 기독교상담 윤리교육 활성화 방안

1) 기독교상담 윤리에 관한 전문 연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

기독교상담 윤리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상담윤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는 기독교상담 윤리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한국 복음주의 상담학회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기독교상담기관에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윤리강령 제정과 아울러 윤리위원회가 조직 운영 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윤리 위원회를 통하여 상담현장에서 나타난 윤리문제에 대한 내용과 빈도별 현황 파악, 그리고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사례집이 발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윤리문제가 파악되면 그것이 윤리강령에 반영되도록 하고 상담자들이 실제 상담에서 참고하고 활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sup>48)</sup>

2) 표준화 교과 과정을 통한 기독교상담 윤리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최해림 연구에서 205명의 상담자 중 윤리적 갈등을 경험한 상담자는 119명(58%), 윤리적 문제를 목격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는 상담자가 101명(49.3%)였다.<sup>49)</sup> 그러나 응답 중 13명만이 상담윤리를 다룬 과목을 이수했다고 했는데, 이는 대부분 외국에서 교육받은 것으로 추측 된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상담윤리교육은 상담학과를 비롯한 전문상담자 양성과정에서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함양미달의 상담자를 양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심히 우려가 된다. 상담자가 윤리에 벗어난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상담 윤리적 이탈을 문제 삼아 소송이 발생한 것은 년 간 7.2%, 잘못된 치료에 대한 소송은 무려 1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황이 미국과는 다소 다르

지만 상담윤리문제는 결코 과소평가 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sup>50)</sup>

그러므로 상담관련 학과에서는 의무적으로 윤리과목을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선진국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국형 기독교상담 윤리교육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힘써야 한다. 특히 상담교육기관에서 표준화 된 교육과정이 없이 제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니 상담윤리 과목개설이 힘들어 진 것이다. 그러므로 학부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상담윤리가 독립된 하나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최소한 3학점 이상의 전공 필수과목으로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sup>51)</sup>

### 3) 기독교상담 윤리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각 학회 또는 협회에서 만들어진 윤리강령 중심의 해설 자료만 있을 뿐 실제적인 상담윤리의 공통적인 교재로서 개발된 바는 없다. 그러므로 상담윤리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교과교육 전문가에 의해 상담윤리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겠다.

현실적으로 기독교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윤리학 강좌를 개설한다고 할지라도 가르칠 한국 교재는 전무이고 기독교상담 윤리학을 위한 자료 또한 거의 없기에 기독교 윤리학자들과 기독교상담학자들의 학계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독교상담 윤리학 교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4) 상담윤리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상담 윤리교육은 물론이고 일반상담 윤리교육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현재 단행본으로 한국에 출판 된 기독교상담학 책은 오윤선이 번역한 “기독교와 상담 윤리”<sup>52)</sup> 외에 그렇다할 저서는 물론이고 번역서도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상담관련 논문이 1년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지만 정작 기독교상담 윤리 관련 논문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상담현장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담윤리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 기독교상담 윤리의 학문적 발전이 지속되도

록 해야 할 것이다.

5) 상담자 계속교육을 통한 자질개선과 윤리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상담이 삶의 한 양식이고, 상담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상담자라는 입장에서 유능한 상담자가 지녀야 할 인간적 특성이나 자질에 대하여 끝없는 토론이 요구된다. 기독교상담에 관련된 윤리지침이 없거나 세분화되지 못한 현재의 실정에서, 상담자는 전문분야의 최근의 지식을 숙지하고, 솔직하게 자기검토를 하는 과정을 통해 상담실제에서 일어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가 미숙함으로 변명의 여지를 주기보다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 상담하려면 여러 가지 윤리적 딜레마에서 적절하게 반응, 행동할 수 있도록 늘 자각하고 자질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sup>53)</sup>

### III. 닫는 글

상담자의 임무는 실의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담자들은 종종 심사숙고를 요하고, 명확한 해답을 가지지 못하는 윤리적인 결정들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기독교상담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직업윤리에 의해서 또는 자신들의 윤리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대처한다. 그러나 기독교상담자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요 또 직업인의 한사람으로 윤리기준에 따른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상담의 윤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지침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십계도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교회 관련기관에 상담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어 상담교육기관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고 상담과정에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윤리에 관련 교

육은 물론이고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윤리교육은 상담자의 오진을 막을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의 발생을 막는 방호막이 되며, 문제 소지가 있는 상담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차원과 상담과정에서 직면하는 상담윤리에 대한 해결과 재교육 차원에서 매우 절실하고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 【 참고문헌 】

- 권순구. "신학과 윤리에서의 관계개념." 「신학과 목회13」. 경산: 영남신학대학교. 1999.
- 김은희. "상담윤리 결정을 위한 준거로서 상담 윤리요강의 방향모색."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김철영. 「믿음과 삶의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방법과 과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5.
- 박노권. "목회상담에 있어서 윤리의 중요성." 신학과 현장(1999).
- 박현준. 「한국의 기업윤리」. 서울: 박영사. 2002.
- 방기연. "집단상담에서의 상담 윤리강령." 「연세교육연구」. 제17권 1호 (2004).
- 심상권. "현대 목회상담학의 오늘과 내일: 한국교회의 목회상담학 발전을 위한 비전" 「실천신학 논단」. 대한기독교서회. 1995.
- 오윤선. 「신세대를 심리학 이해」. 서울: 젊음과 만남. 2004.
- 이장호 · 정남운 · 조성호.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2006.
- 전요섭.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좋은 나무. 1999
- 정정숙. 「기독교상담학」. 서울: 베다니. 1994.
- 최원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상담윤리에 관한 고찰" 한영신학대학교 교수 논문 제3집. 1999.
- 최원호. "상담윤리 교육방안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교수논문 제4집. 2000.
- 최원호. "상담윤리의 개념정립과 교육내용 구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최해림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02.
- Collins, Gary R. *Excellence and Ethics in Counseling*. 오윤선 역. 「기독교 상담윤리」. 서울: 두란노. 1996.
- Crook, Roger H.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 2nd edition. 최봉기

- 역. 「기독교 윤리학 개론」.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Grenz, Stanley J. *The Moral Quest: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서울: IVP출판부. 2001.
- Hiltner, Seward. *Pastoral Counseling*. 마경일 역. 「목회카운셀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Allen, V. B. "A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AACD Ethics Committe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86.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actice. *Counseling Today*, 37(12), June. 1995.
- Browning, Don S.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6.
- Callis,R., Pope,S., & Depauw,M. *Ethical stadards casebook(3rd.ed.) :Falls churches*. VA: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1986.
- Cogers, A *Theory of Therap*.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7.
- Freud, S.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rans. and ed. James Strachey*. New York: W.W.Norton & Company. 1989.
- Holifield Brooks E.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 Holms, Urban T. *The Future Shape of Ministry*. New York: Seabury Press. 1971.
- James M. Gustafson. *Can Ethics Be Christ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 Juanita Benetin and M. Wilder. *Sexual Exploitation and Psychotherapy*. *Women's Rights Law Reporter* 11 no.2. 1989.
- Kirkpatrick, Frank G. *The Ethics of Community*. London: Blackwell Publishers. 2001.
- May, Rollo. *Existence: A New Dimension in Psychiatry and Psychology*. New York: Simon & Schuster. 1967.
- Newton, Adam Zachary. *Narrative Eth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Randolph K. Sanders. *Christian Counseling Ethics*. I.V.P. 1997.
- Rays. anderson. *Christians who counsel : the vocation of wholistic therapy*. Grand Rapids: zondervan. 1990.
- Seward Hiltner.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49.
-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ical Ethics*. 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5.

[ 후주 ]

- 1) 이장호 · 정남운 · 조성호, 「상담심리학의 기초」(서울: 학지사, 2006), 5.
- 2) 심상권, “현대 목회상담학의 오늘과 내일: 한국교회의 목회상담학 발전을 위한 비전”, 「실천신학 논단」(대한기독교서회, 1995), 371-386.
- 3) 여기서 도덕적 발달이나 성장의 의미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적응”으로 이해함이 타 당하다. 즉 인간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체계 속에서 존속하는 것이 최대의 삶의 목표 라고 할 때 도덕성의 성장이나 발달의 지향은 바로 존속을 위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박철호, 「기독교 도덕형성 체계 연구」(서울: 홍익재, 2003), 70-73.
- 4) James M. Gustafson은 Karl Barth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윤리적 상황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원리들의 사 용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James M. Gustafson, “Can Ethics Be Christian?”(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5), 148.
- 5)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A Study in Theological Ethics*(San Antonio: Trinity University Press, 1975), 1-10, 129-178.
- 6) Thomson, T.L. *Managed care: Views, practices, and burnout of psychologis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University Microfilms. No. 91-14, 1999), 449.
- 7) 최원호, “상담윤리의 개념정립과 교육내용 구성”(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6-27.
- 8) 오윤선 역, 「기독교상담윤리」(서울: 두란노, 1996), 47.
- 9) 오윤선 역, 47-50.
- 10) Allen, V.B, *A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AACD Ethics Committe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1986. 64(1), 293.
- 11) Callis, R., Pope, S.,& Depauw, M. *Ethical standards casebook*(3rd. ed.): Falls church. VA: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1986.
- 12) 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 Monitor on Psychology.32 (2001,2), 77-89.
- 13) 최해림,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Vol.14, No 4, 2002) 806-807.
- 14) Gary R. Collins, *Excellence and Ethics in Counseling*, Word, Inc. 1991.
- 15) *Randolph K. Sanders*.
- 16) 김은희, “상담윤리 결정을 위한 준거로서 상담 윤리요강의 방향모색”, (경북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3-24.
- 17) 최원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상담윤리에 관한 고찰”, 「한영신학대학교 교수논문집」 3(1999), 331~358.
- 18) 최원호, “상담윤리 교육방안 연구”, 「한영신학대학교 교수논문집 4」(2000), 367-390.
- 19) 최해림, 805-828.
- 20) 방기연, “집단상담에서의 상담 윤리강령”, 「연세교육연구」 172004,1), 99-111.
- 21) 최원호, “상담윤리의 개념정립과 교육내용 구성”,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22) 정정숙, 「기독교상담학」(서울: 베다니, 1994), 413-441.

- 23) Collins, Gary R., *Excellence and Ethics in Counseling*, 오윤선 역, 「기독교상담 윤리」 (서울: 두란노, 1996).
- 24) 박노권, “목회상담에 있어서 윤리의 중요성”, 「신학과 현장9」 (1999), 180-200.
- 25) 오윤선, 「신세대를 심리학 이해」 (서울: 젊음과 만남, 2004), 20-31.
- 26) S.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rans. and ed. James Strachey(New York:W.W.Norton & Company. 1989), 86-88, 100-101.
- 27) Cogers, “*A Theory of Therap*”,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7), 48.
- 28) Seward Hiltner, *Pastoral Counsel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49), 97.
- 29) E. Brooks Holifield, *A History of Pastoral Care in America*,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339-344.
- 30) 박노권, 182-185.
- 31) 정정숙, 433-434.
- 32) 방기연, 106.
- 33) 정정숙, 436-437.
- 34) Counseling Association *Code of ethics and standards of practice*. Counseling Today, 37(1995,12), 33-40.
- 35) 최원호, 박사학위 논문, 49.
- 36) 최해림, 11.
- 37) 최원호, 박사학위논문, 51.
- 38) 오윤선 역, 66.
- 39) K.S. Pope. P. Keith-Spiegel and B. G. Tabachnick, “*Sexual Attraction to Clients: The Human Therapist and the Inhuman Training System*”, American Psychologist, V.41(Feb.1986), 147-158. 전요섭,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좋은 나무, 1999), 192 재인용.
- 40) Juanita Benetin and M. Wilder, “*Sexual Exploitation and Psychotherapy*”, Women's Rights Law Reporter 11 no.2(1989), 121. 전요섭, 193 재인용.
- 41) 정정숙, 437-438.
- 42) 오윤선 역, 241-249.
- 43) Rays. anderson, *christians who counsel : the vocation of wholistic therapy*(Grand Rapids: Zondervan, 1990), 196.
- 44) 최원호, 박사학위논문, 35.
- 45) 엡 4:13.
- 46) 고전 10:31.
- 47) 최원호, 박사학위논문, 108.
- 48) 김은희, “상담윤리결정을 위한 준거로서 상담윤리요강의 방향모색”,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0.
- 49) 최해림, 807-808.
- 50) 전요섭,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좋은 나무, 2001), 187-189.
- 51) 최원호, 박사논문, 151.
- 52) 오윤선 역, 「기독교상담 윤리」 (서울: 두란노, 1996).
- 53) 최해림, 825.

【 Abstract 】

A Study on Ethical Attitude Educ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Yoon-Sun Oh  
(Ph.D.,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for this study was Ethical Attitude Education of Korean Christian Counselor' counseling performance and also contain the fundamenta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cademic identity on counseling ethic to prevent the absence of ethical education system in the university and Counselors education center. Despite of fact that ethics education is the great importance to counselors we have not yet any ethical codes or standards for Korean Christian Counselor. The explored unethical problems are 1)accept general psychology with out considering, 2) Privacy and confidentiality, 3) dual relationship and sexual intimacy, 4) the qual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professionals, etc.

This study includes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orean counseling ethic was review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every major ethical components of each organization to those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CAPS) and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KCPA), Korean Association of Pastoral Counselors(KAPC). we should make strengthen about a education of Counselors for let people do well about activity of counselor Ethically and let items of a Ethical Christian Counselors to apply well in the field of counselor.

This study united curriculum of ethical counselors and we should held the way of a Education counsellor from a good mutual relation setting up in effect and a theory. To develop counseling as a profession Christian Counselors are to work on the ethical codes and standards which are a vehicle for a professions identity, self-discipline and maturit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ethical practice committee will be organized in Christian Counselors and the study continually for Christian Ethical counsellors education with effort for a counselor's improvement of measuring.

**Key words:** ethics educati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dual relationship, sexual intimacy, ethical codes.